

# 유통업계 “미세먼지와 전쟁 중”

### 유·스퀘어, 실시간 모니터링 프로그램 자동 철벽방어 나서 광주신세계·롯데백 공조기 성능 개선 등 청정구역 유지 총력

광주 전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2일 오전.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는 미세먼지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가동돼 실시간 공기 질 관리 조치가 이뤄졌다.

유·스퀘어 중앙통제실에서는 즉각 출입구마다 설치된 에어커튼(Air curtain) 28대 전체를 가동해 외부 공기의 유입을 차단했고 3중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공조기(공기 조화기)가 공기 속의 먼지 등을 제거했다. 동시에 미세먼지를 약화하는 공회전 금지와 출입문 단순 안내방송이 건물에 흘러나왔다.

유·스퀘어는 고객이 몰리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미세먼지·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일 때는 탑승구(3대)·문화관(2대)·영화관(2대)에 설치된 7대의 공조기를 모두 가동하고 출입구를 수시로 물

청소하고 있다.

이동민 유·스퀘어 사원은 “67곳의 음식점과 패션잡화·화장품 등 소품매장 36곳이 자리잡은 유·스퀘어는 고객이 깨끗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방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관리자가 외부에 있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공기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야외로 나가기 꺼리는 사람들이 늘면서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유통업체들이 마케팅 전략으로 공기 질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미세먼지와 전쟁”에 가장 먼저 나선 곳은 백화점이다. 쇼핑공간 외에도 카페·문화센터 등이 마련된 백화점은 고객이 오랜 시간 동안 쾌적하게 머물 수 있도록 수시로 공조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계는 건물 1층 출입구 5곳에 20개의 에어커튼을 설치해 공기 흐름을 관리하고 있다. 9개층 전 층에는 각 층마다 공조기를 23대 설치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때를 대비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역시 에어커튼을 상시 가동하고 있으며 외부 오염으로부터 차단된 청정구역을 유지하기 위해 공조기 성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 등 실내 놀이공간 등도 야외 나들이를 망설이는 가족 고객을 겨냥해 시설 유지 보수작업을 진행하는 등 고객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민감한 고객들이 늘면서 ‘정정공기 마케팅’은 필수적”이라며 “다이스’과 ‘블루어’ 등 매장에서 판매하는 공기청정기는 생활 필수 가전으로 자리잡았고 ‘휘슬러’ 매장에서 판매하는 인덕션(히터)은 일산화탄소와 같은 유해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때문에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9일 광주 유·스퀘어 중앙통제실에서 한 사원이 실외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공기 질 관리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유·스퀘어 제공>

## 때 이른 더위에 쿨~한 여름나기 상품 인기

### 마트·백화점 등 손님맞이 분주 에어컨·수박 등 전년대 매출 증가

때 이른 더위에 소비자들 분주히 ‘여름나기’ 준비를 하고 있다.

마트·백화점 등 유통업체는 에어컨·의류 등 여름상품을 앞 다퉈 들여놓으며 손님맞이 준비를 끝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5월 최고 기온은 ▲2015년 29.7도 ▲2016년 31.1도 ▲2017년 31.7도 ▲지난해 33.1도로 최근 4년 동안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이른 더위에 가장 먼저 반응이 오는 상품은 단연 에어컨이다.

광주지역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여름상품 매출액을 전년과 비교해보면 에어컨은 141.6%, 수박 156.3%, 물놀이용품은 78.8% 증가했다.

시원한 먹거리와 물놀이 용품도 인기다. 지난 4월 한 달 간 이마트 수박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9.4% 늘었다. 프리미엄 수박 매출 증가율은 135.3%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장원중 이마트 상무점장은 “5월 한 달 기온은 한여름과 맞먹기 때문에 여름용품 기획전을 평년보다 빠르고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에어컨은 7~8월 보다 5월에 미리 구매하면 최대 50만원 정도 절약하고 카드사 상품권이나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을 증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오는 15일까지 LG 멀티형 에어컨(FQ17S9DWQ2듀얼S공정) 등 에어컨 행사상품 구매 때 일부 카드를 사용하면 10만~50만원 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마트는 같은 기간 동안 6~9kg 수박을 1만3800원에서 1만8800원 선에 선보인다. 또 물놀이용품 3만5000원~4만4800원에 구매하고 물안경·튜브 등을 장만할 수 있는 물놀이용품 모음전을 기획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광주지역 아울렛 패션매장의 경우 지난해 말 90% 이상 여름옷으로 새 단장을 마쳤다. 올해 여름 의류 입고는 예년에 비해 보름 정도 빠른 것으로 백화점과 아울렛은 8일까지 초특가전을 진행했다.

(광주신세계는 여름 더위에 대비해 오는 9월30일까지를 ‘하절기 식중독 사고 예방 특별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하절기 식품 위생 관리에 들어갔다. 신세계는 하절기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간장게장, 생갯잎 김치를 포함한 8개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식품별 판매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각김밥, 초밥, 생선회, 도시락 등은 제조 후 냉장 상태에서 5시간을 넘지 않도록 판매한다. 아울러 조리종사자 손 검사 등 개인 위생 관리를 확대 실시하고 일일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식품 위생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8일 오후 롯데백화점 광주점 6층 와코루 란제리 매장서 한 고객이 여름 더위에 대비해 인건(人絹) 잠옷을 고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전남 친환경농산물 경기도 학교급식 공급

### 2020년 2월까지 10개월간

농협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이하 센터)가 경기도 학교급식 공급 업체로 선정됐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센터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관의농산물 공급업체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학교급식 공급기간은 이달부터 2020년 2월까지 10개월간이며 주요 품목은 멜론, 무화과, 블루베리, 고구마, 감자, 양파 등 전남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다.

센터는 정부의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7개년 계획에 따라 부지 2만9987㎡, 연면적 1만3644㎡의 규모로 건립된 호남권 초대형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로 저온창고, 냉동창고, 집배송장, 선별포장장, 전처리실 등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다.

수박·멜론 비파괴당도선별기, 양파·감자 중량선별기, 양파자동계량포장저울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최적화된 유통설비가 들어서 있다.

지난 2017년 10월 개장해 그 해 7억 원, 지난해 68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는 180억원을 목표로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 “전남 쌀 ‘풍광수토’ 맛보세요”

### 경남 양산서 판촉 행사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전남 쌀 공동 브랜드 ‘풍광수토’를 경남 하나로마트 양산점에 선보이며 오는 31일까지 다양한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양산 물금신도시에 자리잡은 하나로마트 양산점은 5620㎡(1700평) 규모로 지난 달 30일 개점했다. 농협 전남본부는 전남도와 함께 떡메치기, 사은품 증정 등을 펼친다.

먼저 지난 3~4일 떡메치기 행사에 참여한 소비자에게는 풍광수토 견본(500g)을 증정했고 10kg 쌀 1포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햅양파 1망(1.5kg)을 증정한다.

김석기 전남지역본부장은 “전남 쌀 공동 브랜드인 풍광수토는 올해 들어 제주도, 부산 등 판매처를 확대하고 있다”며 “전남도와 오는 6월까지 홈쇼핑 방송과 온라인쇼핑몰 등 판로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FACE 메이크업은 하시면서,  
**BODY** 는 왜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십니까 ?

44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속속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시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  
(원적외선파동)

www.aroma-life.co.kr

**1588-2219**